

‘와불 일어나다’ 전...미완이어서 더 아름다운 운주사 천불천탑

황순칠 화백 23번째 개인전

21~27일 서울 인사아트센터 열려
입석불·와불·탑시리즈 등 40여점
새롭게 바로 서는 대한민국 희망

2013년 3월 담양 남면 독수정에서 매화를 그리던 황순칠 화백은 불현듯 정원 돌탑에서 운주사 향아리탑을 떠올렸다. 매일 매화 작업을 하는 중에도 향아리탑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고 그는 매화 작업을 마치자마자 운주사로 달려가 40호 종이에 묵단 작업 후 물감으로 한 달 남짓 그려 수채화 향아리탑을 완성했다.

하나만 더 그려보자는 생각에 다시 운주사를 찾았을 땐 목이 잘린 돌부처에서 광주 5·18의 상처를 떠올렸다. 황 화백은 그 돌부처를 화폭에 담아내며 위안을 받았다. 석불 석탑의 밝고 선명한 색채와 적회갈색, 그리고 거친 화산 응회암석이 싫지 않았기에 미완의 인간적인 돌부처와 인연을 이어갔고 해마다 가을이 되면 운주사로 달려가 천불천탑을 그리며 겨울을 날다.

황 화백은 그렇게 10년이 넘도록 천불천탑을 그렸지만 그동안 한번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12월 3일 계엄 사태가 발생하자 작가는 운주사 천불천탑 작품을 공개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운주사 와불이 일어나는 날 이 땅에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전해오는 것처럼, 새롭게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황순칠 화백의 23번째 개인전 ‘운주사 천불천탑 와불이 일어나다’가 21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린다. 그동안 그려온 운주사 천불천탑 작품 중 40여점을 엄선해 선보이는 전시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운주사 천불천탑 작품들은 모두 황 작가의 숙명적인 결과물들이다. 미완이어서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운주사의 돌부처, 운주사 경내에서 그려낸 ‘입석불’, ‘와불’, ‘좌불’, ‘갑실불’, ‘탑’ 시리즈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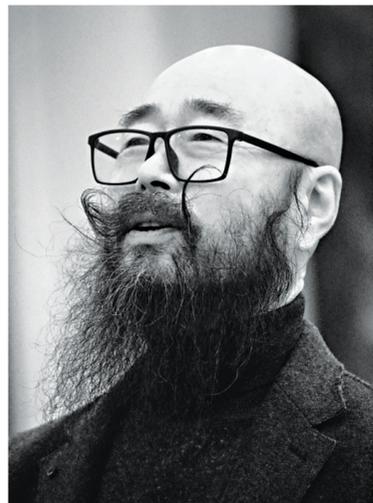
이번 운주사 천불천탑 그림들은 서예의 갈필법을 연상케 했던 ‘고인돌 마을’ 시리즈에서 크



황순칠 작 '눈보라 몰아치는 靜寂(정적)의 龕室(감실불)'

게 벗어나지 않았다. 일견 연장선상에서 좀 더 진화한 것처럼 보인다. 다만, 이번에 전시하는 작품들은 마치 토수(土手)가 미장하듯 나이프 기법을 대담하게 구사해 오돌토돌한 돌의 질감을 이전의 ‘고인돌 마을’ 보다 한층 강조했다. 그는 운주사 돌부처와 탑을 그리고자 수백번 나이프로 붓놀림하듯 그려 완성도를 높였다.

정찬주 소설가는 작품 해설을 통해 “미완의 탑 그림을 보면 감상하는 이가 미완의 탑이 되고, 미완의 돌부처를 보면 미완의 돌부처가 되기를 바란다. 천불천탑 그림들이 인간적이고 아름답기 때문에 이질감이 전혀 들지 않고 편안하리라 믿는다”면서 “황 화백의 운주사 천불천탑 작품감상을 넘어 모든 이들에게 황 화백과 같은 ‘석불이 나다’라는 깨달음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순칠 화백

황순칠 화백은 “12·3 계엄정국을 거치면서 천불천탑을 공개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면서 “이 나라에 희망을 보이고자 ‘운주사 천불천탑 와불이 일어나다’를 제목으로 삼아 뜻있는 전시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여수에서 태어난 황 화백은 고교시절 서예를 배웠고 안진경체, 구양순체, 왕희지체, 소동파체를 혼자 힘으로 독파했다. 한때 김종현 서체를 가까이했고 예서와 전서, 행초서, 초서를 많이 썼다. 허백련이 개원한 연진회 미술원에서 동양화를 배운 뒤 대학에 들어가 서양화를 익혀 그의 그림 속에는 동서양의 기법이 두루 섞여 있다. 초목법의 획을 연상케 하는 ‘황소’ 시리즈, 갈필법으로 질감을 드러낸 ‘고인돌 마을’ 시리즈, ‘배꽃’ 시리즈를 선보여 왔으며 ‘운주사 천불천탑’전은 21년만의 서울전시다. 최진화 기자



황순칠 작 '향아리탑'



황순칠 작 '龕室(佛)(감실불)'



카메라타 로열 콘서트헤바우.

ACC재단 제공

‘카메라타 로열 콘서트헤바우’ 광주 무대

7월4일 아시아문화전당 극장1

‘카메라타 로열 콘서트헤바우(CAMERATA RCO)’ 내한공연이 오는 7월 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1에서 열린다. ‘2025 ACC 슈퍼클래식’ 첫 번째 무대다.

‘카메라타 로열 콘서트헤바우’는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세계 최정상급 오케스트라 ‘로열 콘서트헤바우’의 핵심 단원들로 구성된 실내악단이다. 현악기와 관악기가 어우러진 소규모

오케스트라 구성으로 정교하고 풍부한 음악을 구현하는 이들은 섬세한 연주와 깊이 있는 해석으로 전 세계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이들이 속한 ‘로열 콘서트헤바우’는 영국 음악 전문지 ‘도이치 그라모폰’이 선정한 세계 1위 오케스트라다.

‘카메라타 로열 콘서트헤바우’는 이번 공연에서 고전과 낭만을 아우르는 전통 연주곡뿐만 아니라 현대 작곡가들의 작품까지 폭넓게 연주하며 실내악의 진수를 선보인다. 세계 최정상 오케스트라가 갖는 중후함과 유려한 사운드, 실

내악단의 섬세한 화음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무대로 생생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내한 공연을 앞둔 로열 콘서트헤바우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미리 실내악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다.

공연은 7월 4일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되며, 관람료는 R석 9만 원, S석 7만 원, A석 5만 원이다. 전당재단(www.accf.or.kr) 누리집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한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재단은 ‘2025 ACC 슈퍼클래식’으로 7월 ‘카메라타 로열 콘서트헤바우’에 이어 오는 10월 피아니스트 백건우, 11월 첼리스트 게리 호프만의 공연을 선보인다. 최진화 기자

전라남도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FACT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인증제품 : 나이스3A, DE202-AW, DE202-AB 농기계 보조사업 기종, 농협용자, 농기계 보험, 면허증/번호판 없이 탑승가능



나이스 3A (오토바이 형식 핸들)



DE202-AB (오토바이 형식 핸들)



DE202-AW (자동차 형식 핸들)



문의전화 061-352-3010

본사공장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33 (전기자동차 산업단지 내)

제품정보 대풍이브이자동차 를 YouTube / NAVER 에 검색해 주세요!!